



3cc 헌혈,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골수기증,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범장·이하 실천본부)가 9월 현재 1500명의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을 받았다. 올 처음 시작한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괄목할만한 숫자이다. 연말 목표 등록수도 고쳐 잡았다. 500명 늘려 2500명의 골수기증 희망자를 등록시키고, 기증캠페인 횡수도 늘릴 계획이다.

출범 10년차를 맞은 실천본부가 이렇게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에서 성과를 보인 원동력은 설립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특신청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경주 불국사 56명, 대구 동화사 14명 등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불교계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 이끌어 냈다. 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8월 4일 개최한 연합캠프에서 청소년지도자 39명이 골수기증등록을 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8월 6일 연 여름대회 현장에서 청년봉사 85명이 기증 희망자로 동참했다. 거리의 시민들도 큰 호응을 보였다. 서울 종로타워 일대에서 300여명, 서울 대학로에서 103명 등이 3cc헌혈에 참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연예인봉사단과 함께 8월 31일 서울 종로타워 일대에서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생명나눔본부, 골수 기증 희망자 1500명 돌파
대학생 청년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 호응 높아
연내 2500명 목표 다각적인 홍보 전개키로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료복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삶과 생명을 나누는 참뜻을 실천한다는 창립 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올 초 10주년 기념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불교계 직장·직능단체, 강원, 신도단체, 복지시설 등과 연대활동, 자원봉사조직 기반 재정비도 한 몫을 했다.

실천본부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16차에 걸쳐 진행된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캠페인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8월 25~27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공동으로 개최한 캠페인에서 501명이 기증등

하지만 실천본부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골수기증등록자 수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인간 골수기증을 위한 유전자 일치율이 70%를 상회하려면, 최소한 골수기증등록자가 20만 명이 돼야 하기에 그렇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2003년 기준으로 파악한 골수기증등록자는 불과 5만3천여 명. 전국민적인 관심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천본부는 이를 위해 골수기증등록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9월 10일 서울 동대문 프레이타운 일대를 비롯해 12일 조계종 중앙신도

회가 주최하는 제1회 달마마라톤대회, 22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골수기증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팀 기획홍보부장은 “골수기증등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골수기증이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며 “본인의 유전자형을 미리 등록해놓는 생각으로 동참하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60 김철우 기자

‘골수기증등록’ 이렇게 하세요

-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이란?**
골수기증희망자등록은 3cc 정도의 채혈만으로 가능합니다. 기증희망자에게서 채혈한 혈액으로 조직형(HLA)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을 하려면?**
단체 신청시에는 10명 이상의 기증희망자가 모이는 날짜와 장소 등을 연락해 주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직접 채혈해 주고, 개별적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연락 하면 채혈 가능한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 **기증 대상**
18세~40세 미만의 건강한 남녀를 누구나 가능
- **골수 기증 절차**
국립장기이식센터에 유전자형이 입색되면 기증자는 수혜자와 조직적합여부를 결정, 건강검진을 거쳐 골수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
- **부담금**
없음(검사비는 정부에서 부담, 수술시 비용은 수혜자 부담)

■ 나눔의 성금 접수

한 불자님이 익명으로 나눔의 손잡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해 주었습니다.

부산 이재권 님 - 5만원
 이현이 님 - 5만원
 김준성·장윤희 님 - 48,900원
총 누적금액 21,894,580원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봉은사 나눔가게로 오세요”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가운데)과 부친 석영사 주지 영담 스님 등이 8월31일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삼성역점’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눌 작은 터전이 마련됐다.

봉은사 경내 건물에 중고물품 판매수익으로 이웃돕기 기금을 조성, 지역사회로 회향하는 ‘아름다운 가게’가 8월 30일 개점된 것이다. 26번째 상설매장인 이곳 ‘아름다운 가게’는 ‘봉은사 삼성역점’으로 명명됐다. 불교계에서는 부친 석영사 원미점에 이어 두 번째.

봉은사는 자원봉사인력, 장소, 물품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 손숙·윤팔범·박성준)’단체에서 운영해 나간다. 특별히 이번 봉은사 ‘아름다운 가게 삼성역점’의 개점에 맞춰 인근 코엑스 직원들이 의무 200여점, 책 300여권을 비롯, 생활 소품과 주방기기까지 다양한 물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봉은사가 운영하는 서산·사명 장학회(회장 김경남)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아름다운 가게’ 측은 수익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익분배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

하게 재정을 운영한다.

한편 이날 개점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이 모아진 소중한 가게의 의미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일상에서 피어나는 나눔으로 모인 열매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존재하는 것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 풀어진 생명의 그물코를 다시 엮는 일, 조용히 낮은 자리에서 이슬비처럼 세상을 적시며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불자들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부친 석영사 주지),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부친 상동준 운영) 등 종교계의 아름다운 가게 운영자를 비롯해 포스코 이구택 회장과 인터넷리넨탈 심재경 사장, 인터파크 이상규 사장 등의 재계 인사도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www.beautifulstore.org (02)516-7887 박봉영 기자

26번째 상설매장 문열어 수익금 장학사업에 쓰기로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장차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찬불동요를 위한 장차 찬불동요를 선골해 주세요.

불자들이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이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구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계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사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사야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들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인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